



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

산림과학 속보 07-08

밤나무 품종선택 및 갱신

Chestnut Cultivar Selection and Renewal of Orchard



국립산림과학원
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



밤나무 품종선택

- 품종선택의 중요성.....3
- 품종선택시 고려사항3
- 주요 재배품종의 특성5
- 주요 재배품종의 개화기6
- 주요 재배품종의 성숙기7

밤나무 품종갱신

- 밤나무 품종갱신의 필요성8
- 품종갱신 방법.....9
- 밤나무 품종배치.....13



밤나무 품종선택

○ 품종선택의 중요성

- 밤나무는 성과기까지 적어도 7~8년을 기다려야 하고 최소한 20년 이상 경제수령이 지속되는 영년생 작물임
- 신규조성 혹은 기존의 밤나무를 새로이 갱신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재배경쟁력이 높은 품종을 선택
 - 소비자의 선호도 및 이용·가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
 - ▣ 고감미성, 박피용이성, 독특한 외관 등으로 품종 브랜드화가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선택
 - 친환경 재배, 고품질과(果)의 생산, 생력화가 가능한 품종을 선택
 - ▣ 한국밤의 대외 수출경쟁력 확보 및 중국밤의 국내 유입확대에 대처

○ 품종선택시 고려사항

-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몇 가지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한다.
 - 작업관리 및 노동력의 분산 차원에서 고려
 - 재배면적에 따른 적절한 품종 수
 - ◆ 2ha 이하 2~4품종, 2~5ha 3~5품종, 5ha 이상 4~6품종
- 재배경쟁력이 높은 품종을 선택한다.
 - 무분별하게 도입된 일본품종과 일부 지역민간품종들은 국내 적응성 및 재배안정성 검정을 거치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



- ☞ 2008년부터 밤나무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신품종 보호제도의 시행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개발된 일본 도입 품종의 경우 생산된 밤을 일본시장으로 수출시 어려움이 예상됨
 - 전문 보급기관이나 국가 공인기관 등 품종의 내력 및 묘목 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함
- 수확기를 감안하여 주력품종 및 품종별 구성비율을 결정한다.
 - 재배규모나 작목반별 출하전략에 따라 주력품종을 결정
 - 채취노동력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조생종 10~15%, 중생종 50~60%, 만생종 30% 내외의 비율로 결정
- 수분(受粉)관계를 알아본다.
 - 타가수정을 하므로 다른 품종을 섞어 심어야 안정적인 결실이 가능함
 - 개화기와 수확기 등을 고려하여 주력품종에 적합한 수분수 품종을 선택하고 구성비율은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5~20% 정도의 비율로 식재
 - ☞ 축과, 장방감을 등의 경우 수분수의 비율이 높으면 밤송이당 함과수가 2개 이상으로 많아 밤이 작아지므로 수분수의 비율을 5% 내외로 식재하는 것이 함과수가 1~2개로 적어 대과생산에 유리함.



함과수 1개(외톨밤)



함과수 2개



함과수 3개